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경고를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의 청원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거듭해서 그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조건부 청원을 승락하게 됩니다(민 32:28,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조건부 청원

모세의 엄중한 경고에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들의 청원을 수정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무장하고 모든 지파보다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요단 서편 땅을 다 지배하고 모든 지파가 기업을 다 얻기까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17-18절,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내용은 사실 요단 동편 땅을 달라는 것과 함께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상하고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우려했던 것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전쟁에서 질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또다시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될 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는 가데스바네아의 정탐꾼 사건과 판박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스스로 두려워하며 떨다가 결국 그 두려움과 원망의 원인이 모세에게 향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화살표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바네아의 일처럼 이들이 또다시 가나안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재확인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재청원을 거듭 확인 하면서 조건부 승락을 해주게 됩니다(23-25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모세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들의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라고 못박아 말합니다. 이에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모세에게 약속을 거듭 맹세합니다.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자신의 사후에 실현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도 증거를 삼게 됩니다(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마지막 본문 33절 이하의 말씀은 결국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게 되고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들의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오늘 말씀을 묵상한대로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들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과 다른 지파에도 복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때로는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가나안 동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약속 받은 요단 동편 땅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없었고 그 이하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편 땅에서 다른 지파를 위해서 앞장서 싸우는 동안에도 자기의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동안 주님은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셨습니다(마 6:33,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르우벤과 갓 자손은 형제를 위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장자로서의 본을 남겼습니다. 르우벤은 비록 야곱의 장자였지만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 그리고 육적인 장자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는 끝까지 선봉의 자리에 서서 다른 지파가 모두 승리하기까지 장남다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게 됩니다(민 33:6,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모세와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주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어제 러시아의 산발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땅에 인명피해와 전쟁 개전 이후 또다시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고 이 전쟁이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푸틴이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잘 해결되도록 기도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